

(국문번역)

부모된 특권과 기쁨

The Privilege and Joy of Parenthood

에버린·빌링스 박사(국제 빌링스법협회회장)

(Dr. Evelyn Billings)

성경 창세기에 보면 야훼 하느님께서 남자와 있는 것이 보기좋지않아 그에게 협력자(help-mate)를 만들어 주어야 겠다고 하시고 흙을 빚어 모든 들짐승과 하늘에 나는 새들을 지어 만드셨다는 얘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야훼께서 이들을 모두 남자에게 가져와 보이고 이름을 지어 부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가족과 새와 들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나 그중에 아무것도 그에게 꼭 맞는 협력자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것을 아시고 야훼께서는 그를 깊은 잠에 들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자는동안 그에게서 갈비뼈 하나를 취해 흙을 빚어 여자로 만든다음 그녀를 남자에게 데려옵니다.

이때 남자가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뼈에서 나온뼈요,

내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지아비에게서 나왔으니

지어미라고 부르리라!”

여기서 우리는 한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함께 한몸이 되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빌턴의 실락원(註: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얘기를 쓴 서사시)은 이 세상 최초의 남녀인 아담과 하와의 사랑을 조각한 아름다운 카미오(註: 조개껍질 등으로 조각한 예술품) 걸작품을 우리에게 선사했습니다. 하와에게 있어서 아담 이상의 완전하고 훌륭한 것은 없었던 것입니다.

‘당신과 얘기하고 있는 동안은 나는 모든것을 잊어버릴다’라고 하와는 말을 하는 정도입니다. 에덴동산안의 그 어느것도 하와에게는 아담의

아름다움과 비교가 되지를 앓았습니다.

‘너희는 먼지니 다시 먼지로 돌아가게 될것.’이라는 무서운 말을 들으며 에덴동산을 쫓겨나면서도 그들은 한몸이 되어 사랑하는 사이로 남습니다.

다시 창세기를 보면 ‘남자(아담)는 그의 아내를 인류의 어머니라 해서 하와라 이름지어 불렀다’라는 말이 있고 또 ‘그 남자가 그 아내와 한 자리에 들으니 아내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았다’고 했으며 이때 하와는 ‘야훼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었구나’라고 말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런 말들속에는 여러가지 절대 무조건적인 말이 많습니다.

아담은 그의 아내를 ‘내몸에서 취한몸’이라고 말하고 하와는 또한 그녀가 아들을 낳는데 있어서 반드시 야훼하느님의 뜻하심바가 있었다는것을 깨달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고자 할때 우리 자신은 우리 마음대로 정자와 난자를 고를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는 아이는 반드시 야훼의 도우심에 의해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미켈란제로의 작품 ‘아담과 하와의 창조’에서도 우리는 아담의 그 온화하고 진실되며 지극히 조용한 사랑의 모습과 아름다운 하와를 발견합니다.

미켈란제로가 감히 하와의 모습에 조금치의 근심인들 보이도록 했겠습니까?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낙원을 쫓겨난 하와의 후회보다 더한 후회의 말이 과연 또 어디있겠습니까만 옛부터 존재하시는 하느님(The Ancient of Days)의 얼굴에 가득한 사랑의 모습은 ‘하

느님이 이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나머지 그의 의아들까지 보내주셨다'는 말씀을 이루신 정도입니다.

인간은 부활에 관한 약속이 분명해지기까지 여러세기를 기다려야 했었습니다.

낙원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금방죽은것이 아니며 그 거대한 불행이 그들의 사랑을 끝나게 하지도 않았을뿐 아니라 그들의 결합을 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수없는 우여곡절의 인간역사가 인간사회의 사랑을 더욱 강하게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헛된낙원을 찾아 발광하는 일들이 차라리 남녀의 사랑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카인이 그의 동생을 죽였을 때 그들 부모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 할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초의 모든일이 오늘날 우리세계에서의 일과 그리 다르게 없을 것이고 따라서 아담과 하와 또한 그들의 결혼생활과 부모역할에서 온갖 슬픔과 기쁨을 다 맛보았을 겁니다.

아마도 그들은 인간이 모든것을 잃고난 뒤에야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것 만큼 슬픔이 오히려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그 상처를 고쳐 주는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이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교사인 것입니다.

자녀가 그 부모에게 사랑과 편안함을 원한다면 언젠고 그 부모들은 사랑으로 대해 줍니다. 사랑에 대한 요구는 이토록 그들을 더 사랑하도록 만듭니다. 부모의 사랑에 대한 자녀들의 요구와 필요성이 크면 클수록 우리 부모들에게서는 발휘되는 사랑은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들이 갖는 신비의 한 부분입니다.

어른들에게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편안함을 구하기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특히 그들이 그들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에 의해 피해를 보고 있을 때 더욱 더 그렇습니다. 이때 그들은 그들이 용서받아야 한다던지 또 그것이 가능하다던지 하는것을 믿기가 어렵게 됩니다.

중중 옳지않은 행동은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

으로 인식도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왜 그들의 불행한지도 모르고 지냅니다.

확실한 죄의식도 그 불행의 원인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그들행동이 나쁘지 않다고 스스로 설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행하게 느끼는 일은 그 행위 자체의 부당성에서 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행위 그 자체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그것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일만 남는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정신적으로는 육체적으로든 자녀가 다치는 것을 쉽게 알아낼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상처일수도, 모호한 마음의 불안상태일수도 있으며 또 때로는 그들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기자신에 대한 불안에서 온 불행감 일수도 있습니다. 사랑심이 많은 부모들은 이때 그 자녀로 하여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해시키기도 하고 또 그 상처를 치료해 주기도 합니다.

단 두살짜리 아이도 잘못되었을 알아차리고 불만이나 흡족하지 못한 것을 해소 할수 있게 됩니다.

마음을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을때 아이는 불행해지게 마련입니다. 악마는 바로 해결되지 않은 불행에다 그 발판을 내립니다. 이것이야 말로 고독한 아이의 비극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필요한 이유는 마치 마른땅에 물이 필요한것과도 비유가 됩니다.

다자란 자녀가 평소에는 주로 자존심 때문에도 혼자 일을 처리하며 지내다가도 결국은 부모에 대한 신뢰와 사랑때문에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움을 청해오고 상담해 올때 부모의 마음은 한없이 기쁘게 마련입니다.

때때로 그들의 상처는 그들 스스로 저질러 만든것이고 또 몹시심각한것일수도 있으나 그들의 슬픔은 곧 부모의 슬픔이 되는것입니다. 그들은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부모를 찾는것이며 그만큼 그들은 또 그들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런확신과 불행을 나누는 마음, 그리고 항상 위로해줄 준비를 갖춘 부모의 마음과 실제적이고 현명한 도움때문에 생기는 사랑은 부모에게 부모된 특

권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잘났건 못났건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부모의 마음, 그것은 바로 사랑때문이며 이런일을 통해서 부모된 어른들은 곧 그들이 잘났건 못났건 같은 방법으로 하느님께 받아들여 지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프란시스·톰슨(1859—1907, 영국시인)은 그의 유명한 신앙시, <하늘의 사랑개>에서 다음과 같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내집에 보호할것이니

일이나 내손을 꼭잡고 이리로 오너라’

항상 사랑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야 말로 결혼 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부모가 되는데 있어서 반드시 생겨나는 사랑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일이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스스로 다음 세대를 위한 사랑의 관리인(Custodians of Love)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테오날드 다빈치는 그의 그림 <성모자와 성안나>에서 딸 마리아에 대한 성안나의 사랑, 그리고 아들 예수그리스도에 대한 마리아의 사랑에 넘친 기쁨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랑이란, 사람들의 가슴속에 완전히 이해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도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개의 생식세포가 그 스스로는 생존해 있지 못하는것과도 비유가 됩니다.

소멸되기 직전의 난자도 정자를 만남으로써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제 다시 인류최초의 사랑의 애기 즉 아담과 하와의 애기로 돌아가서,

‘드디어나타났구나, 내뱃에서 나온 뻐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라고 자신만만하게 외치는 아담의 소리, 그리고 ‘야훼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었구나’라고 말하는 하와의 애기를 들어봅니다.

남녀 생식세포는 서로 합쳐짐으로써 하나가되고 이것에 의해 인류의 자질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브래드리페튼은 ‘인류의 장래는 현재 살아 숨쉬는 개개인의 몸 안에 위탁되어 있는 세포원형질에 달려 있다고 말한적이 있습니다.

아 얼마나 큰 보람입니까!

참으로 인류의 장래는 부부서로 그리고 자녀들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사랑에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다고 믿으며 다음세대들을 위해 우리는 이를 고집스럽게 유지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랑의 관리인>인 것이며 이것이야 말로 우리 부모들의 특권이며 기쁨인 것입니다.